



태풍 피해 없도록 북상 중인 제12호 태풍 '오미이스'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자 2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석곡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망월동 석곡천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징검다리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학폭 가해 100명 중 3명꼴 중징계

3786건 중 전학·퇴학 등 110여건...가벼운 처분 '서면 사과' 29.1%

광주지역 학교폭력 가해 학생 100명 가운데 3명은 전학이나 퇴학같은 강한 처분을 받았으며, 절반 가량은 서면사과나 특별교육처럼 비교적 가벼운 계도성 교육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가 심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근절 차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 분리하는 강한 제재를 가했지만 대부분 학교 폭력과 관련해 교육적 목적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심의위원회는 2019년~2020년 2년간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해 총 3786건을 처분했다.

처분 정도가 가장 약한 '서면 사과'가 29.1%인 1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가 22.2%인 8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절반 이상(51.3%)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처분을 받아 교육을 통한 계도가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집중·협박 등 보복금지' 791건(20.8%), 학교봉사 518건(13.6%), 출석정지 221건(5.8%), 사회봉사 193건(5.0%) 등이었다.

처분이 비교적 강한 학급교체가 38건(1.0%) 이뤄졌으며, 특히 2년간 전학과 퇴학도 각각 63건(1.6%), 16건(0.4%) 등이 내려졌다.

광주 초·중·고교 전체 학폭 신고 건수는 2019년 1732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726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올해는 등교수업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말까지 학폭 신고 건수가 722건에 달해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 추세다.

학폭 사건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피해자가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학폭 사

실을 신고하면 해당 학교는 신고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 후 2주 이내(최대 3주 내)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조사한 뒤 학교 내에서 자체 종결할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심의위원회에 넘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학폭심의가 이뤄지면 가해자는 서면사과,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받는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심의를 원하면 학교에서 자체 종결할 권한이 거의 없다는 게 학교 현장의 이야기다.

광주 시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 중심으로 학교 폭력 심의를 진행하고, 엄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완전 분리할 수 있는 강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주로 교육적 차원의 지도가 주를 이루지만 학폭 근절이라는 중심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연합뉴스

전남대병원 주도 KAMIR 연구 논문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SCI 300번째 게재...세계 최고 입증

전남대병원이 세계 의료계의 관심 속에 주도하고 있는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AMIR)사업이 최근 SCI 논문 300편 게재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KAMIR'는 최근 미국의 세계적 학회지인 'Medicine (Baltimore)'에 '비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의 경피적 중재술 전 관상동맥 혈류 등급과 임상 결과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대한심장학회 50주년 기념 연구사업으로 시작된 KAMIR가 그간 발표한 논문 중 세계적 유명학술지에 실리는 최상급 논문인 SCI 300번째 논문을 발표했다.

이같은 연구 성과는 세계적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등록사업인 'GRACE', 미국 'NCDR', 유럽 'SCAAR'의 연구실적을 훨씬 초월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KAMIR는 16년간 국내 40여개의 대학병원에서 총 7만 8000여명의 환자를 등록하면서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KAMIR 연구팀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한 대규모 국책연구사업인 한국인급성심근경색증등록사업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성과집을 발표했다. 또한 대한심장학회 심근색연구회()에서는 KAMIR 논문을 토대로 국내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정리한 급성 심근경색증 약물치료 및 중재술 치료 전문가 합의문을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해 심근경색증 환자 치료 지침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국의 KAMIR를 모티브로 하여 일본은 JAMIR, 중국은 CHAMIR, 대만은 TAMIR를 각각 설립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아세아 심근경색증 가이드라인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명호 대한심장학회 심근색연구회 회장은 "KAMIR의 연구역량은 대한심장학회와 전남대병원의 위상 제고는 물론 향후 국립심뇌혈관연구센터 설립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9월부터 1회용품 사라집니다"

광주 북구 '탄소제로 공공청사' 만들기 나서

광주시 북구가 '탄소중립 생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에 나선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이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 제로, 탄소 제로라고도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수소 생산 및 활용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과 탈탄소 미래기술 상용화 촉진 등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북구는 쓰레기 감량, 자원순환 등을 위

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한다.

먼저 오는 9월 1일 오전 북구청 광장에서 구의회와 함께 개인용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실시,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각종 회의와 행사 개최 시 컵·접시·포크 등 대화용품을 대어하는 '대화용품 공유사업'을 통해 청사 내 1회용품 배출 감소에 노력한다.

특히 지난달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 식기 살균·건조기도 설치했다.

/정명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3년 고1 수업시간 170시간 줄어든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2023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내년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 도입되고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중2가 고1이 되는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의 수업량이 현재 204단위(총 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줄어든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 2560시간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부분 개정에 착수한다. 아울러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한 과목 재구조화, 기초소양 함양 등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사항을 올 하반기에 확정·발표한다.

2023년부터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선택과목 이수 전 수강하는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 모든 학교에서 이뤄진다.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를 기준으로 미도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충 과정이다.

/연합뉴스

호남대, 2학기 '대면+비대면수업' 병행

호남대학교가 1·3학년과 4학년의 일부 학과는 오는 9월1일부터 10월19일까지 7주간, 2학년과 4학년 일부 학과는 오는 10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6주간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2학기 학사 일정을 확정했다.

호남대는 최근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대응 관리대책 회의를 갖고 오는 9월1일부터 시작되는 2학기 수업은 대면과 비대면(동영상 콘텐츠, 실시간 화상수업)을 병행하되, 확진자 발생 시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유동적 학사 운

영 원칙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3단계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수업결손 회복을 위해 수업운영 방식은 2단계에 준해 적용하고 교과목 및 학과 특성에 따라 유동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목별 수업방식은 종합정보시스템(huis)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각 단과대학 교과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온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동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년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